

2026.02.05.(목) 증권사리포트 "GS피앤엘, 무조건 답아라"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넥센타이어

P/E 5배대 불과. 넥센타이어는 지금 타이어보다 싸다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운임비 부담을 상쇄하는 외형 성장과 가파른 수익성 회복 전망

하나증권은 넥센타이어에 대해 하반기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방 산업의 수요 회복과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선재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며, 특히 유럽 공장 2단계 증설 물량의 본격적인 기여로 2026년에는 외형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주가가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 5배 수준에 불과해 현저한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0,500원을 제시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701.7	2,847.9	3,189.6	3,297.1
영업이익	187.0	172.1	170.3	215.5
세전이익	149.7	169.8	198.2	211.9
순이익	102.8	126.4	150.8	157.5
EPS	987	1,213	1,448	1,512
증감율	흑전	22.90	19.37	4.42
PER	8.15	4.95	5.20	5.32
PBR	0.49	0.34	0.38	0.38
EV/EBITDA	5.92	4.93	4.44	4.05
ROE	6.26	7.10	7.72	7.44
BPS	16,314	17,905	19,658	21,041
DPS	115	130	130	130



세아메카닉스 전기차 및 로봇 부품으로의 체질 개선 본격화

[출처]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 기반의 신규 수주 확대 및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키움증권은 세아메카닉스에 대해 독보적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와 자율주행 로봇 부품 등 고성장 산업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현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4분기 실적이 고객사의 재고 확충 수요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2026년에는 전기차향 신규 프로젝트 양산이 시작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물류 로봇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 등 로봇 밸류체인 내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투자의견 중립을 제시했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86.8	92.3	82.2	136.9
영업이익	2.0	-2.7	-2.7	7.4
EBITDA	6.7	2.6	2.2	11.7
세전이익	3.3	1.3	0.3	8.5
순이익	6.4	2.5	0.5	6.8
지배주주지분순이익	6.4	2.5	0.5	6.8
EPS(원)	240	96	20	255
증감률(%YoY)	59.9	-59.9	-78.9	1,161.4
PER(배)	17.0	23.9	117.5	18.6
PBR(배)	1.54	0.85	0.87	1.59
EV/EBITDA(배)	16.3	26.6	28.9	10.4
영업이익률(%)	2.3	-2.9	-3.3	5.4
ROE(%)	9.5	3.6	0.7	9.0
순차입금비율(%)	1.1	9.8	0.7	-4.3

자료: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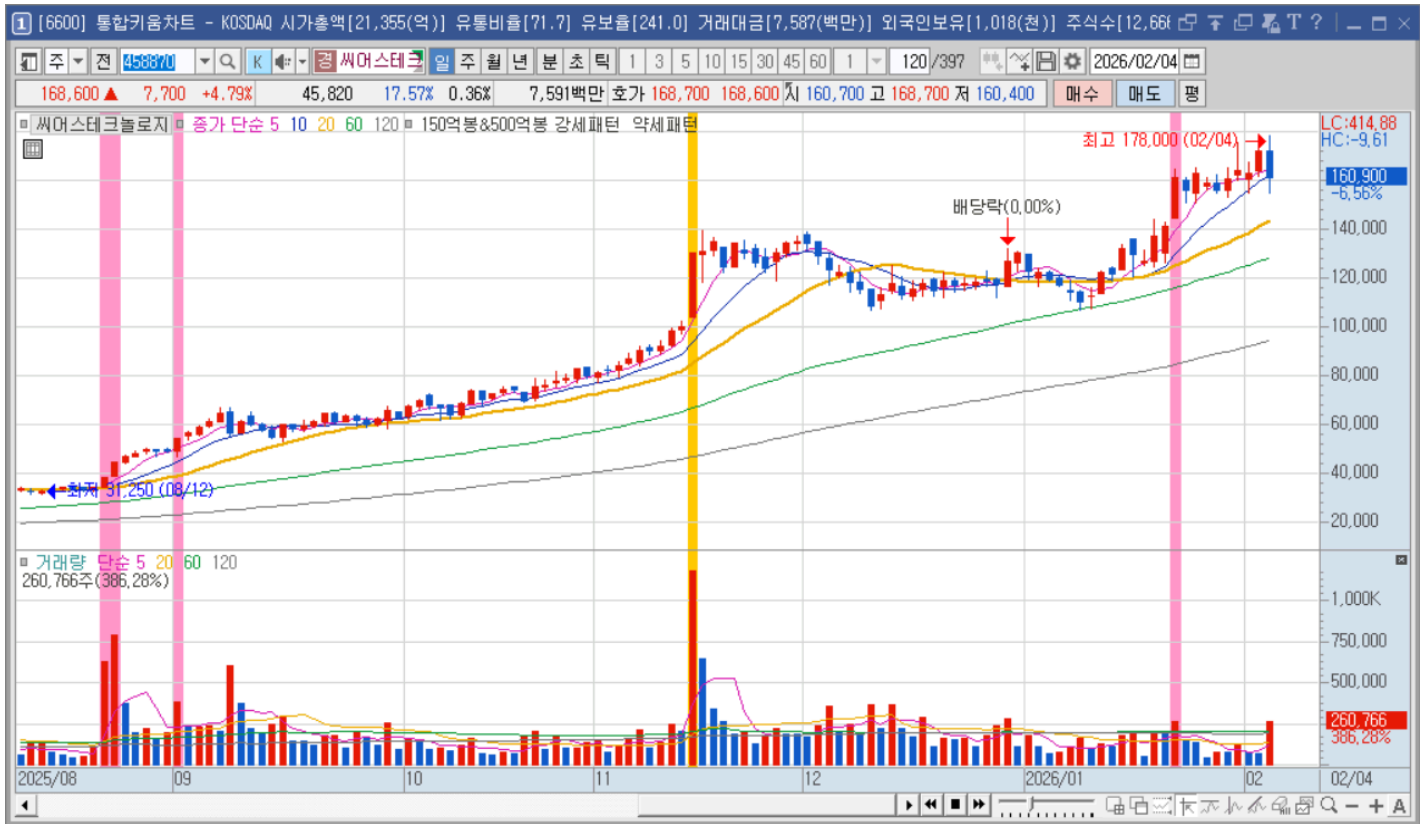
씨어스테크놀로지

폭력적인 실적, 해외 진출, 수급의 3박자

[출처] 미래에셋증권 김충현 애널리스트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과 글로벌 확장 통한 퀀텀 점프 전망

미래에셋증권은 씨어스테크놀로지에 대해 국내 웨어러블 AI 심전도 검사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2026년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리포트의 연구원은 2025년 영업이익이 16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2026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 확대와 구독형 모델 안착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1.7% 증가한 39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 가시화와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중립 의견을 유지했다.



현대건설

2026년, 해외 원전의 실질적 성과 기대

[출처] 미래에셋증권 김기룡 애널리스트

대형 해외 원전 수주 가시화 및 주택 부문 리스크 완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미래에셋증권은 현대건설에 대해 2026년 불가리아 및 대형 해외 원전 프로젝트의 본계약 체결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동반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리포트의 연구원은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해외 인프라 및 원전 부문의 풍부한 수주 잔고가 이익 하단을 지지하고 있으며, 공사비 현실화에 따른

원가율 개선이 하반기로 갈수록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력한 해외 수주 모멘텀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근거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3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GS피앤엘

무조건 담아라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자회사 실적 턴어라운드와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한 가치 재평가 국면

IBK투자증권은 GS피앤엘에 대해 핵심 자회사들의 수익성 개선과 지주사 차원의 주주 가치 제고 의지가 맞물리며 기업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유통 및 식자재 부문의 운영 효율화로 인해 2025년 지배주주순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2026년에는 보유 자산 유동화와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현 주가는 실적 개선세 대비 극도로 저평가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목표주가를 76,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적극 매수를 권고했다.

